

“아빠의 육아 참여, 더 길고 든든하게” - ‘26.1분기 충북지역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폭 증가 -

고용노동부 청주시청(지청장 연창석)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(‘25.2.23.)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 일수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

청주시청에서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“ ‘26년 1분기 기준 257건이 지급되어 전년동기대비 82.2% 증가, 지급금액은 406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6.6% 증가하였다” 고 밝혔다.

* ‘25.1분기 141건, 65백만원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우선지원 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2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로 ‘26년 최대 1,684,210원을 받을 수 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휴가 종료 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연창석 청주시청장은 “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’25.2.23.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함께하고 독박 육아를 방지하는 핵심제도”라며, “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청주고용센터 | 책임자 | 소 장 | 맹현숙 | (043-230-6799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연상모 | (043-229-0720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고지연 | (043-229-0703) |

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

육아휴직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간 및 사용 | <p>최대 1년</p> <p>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</p> | <p>최대 1년 6개월 *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</p> <p>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</p> |

배우자 출산휴가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기간 | 10일 | 20일 |
| 정부지원 | 중소기업 근로자 5일 |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|
| 사용 | 2번에 나눠 사용 (분할 1회) |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 |
| 기한 |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|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|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-|---|---|
| 대상 및 기간 | <p>자녀 연령이 8세 이하</p> <p>최대 2년 *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</p> | <p>12세 이하</p> <p>최대 3년 *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</p> |
| 사용 | <p>최소 3개월 이상</p> <p>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</p> | <p>최소 1개월 이상</p> <p>단축 근로시간도 포함</p> |

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| | 현행 | 개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용 |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| 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에 가능 *고위험질한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|
| 사용 |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|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|

출산전후휴가

| 미숙아 출산 시 기간 | 현행 | 개선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| 90일 | 100일 |

난임치료 휴가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간 | 연간 3일 (1일 유급) | 연간 6일 (2일 유급) |
| 정부지원 | 정부 지원 없음 | 중소기업 근로자 2일 |
| 비밀유지 | 해당없음 |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|

